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3돐 경축 로농적위대 열병식 성대히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3돐 경축로농적위대 열병식이 9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열병식이 거행될 김일성광장은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력하며 자립으로 번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정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으로 끓어번지고 있었다.

광장에는 조선로동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하는 길에서 강위력한 민방위무력으로 자라난 각 도, 련합기업소들의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종대들, 기계화종대들이 정렬해있었다.

애국가와 《조선로동당 만세》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조선로동당기 가 얹혀졌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수많은 고무풍선이 날아올라 광장의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철석의 맹세를 암고 《김정일》, 《결사옹위》, 《일심단결》의 구호를 우렁차게 합창하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과 군대, 국가의 책임일군들, 당, 무력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군종, 병종 사령관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초대석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종양기관 일군들,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영웅들, 혁명렬사유가족들, 혁신자들, 근로자들이 나와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3돐 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 방문단들, 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초대석에 자리를 잡고있었다.

초대석에는 주조 각국 외교대표들, 무관단성원들, 국제기구대표들, 외국손님들이 나와있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주악되고 21발의 폐포가 발사되었다.

열병식 시작을 알리는 류량한 신호나팔소리가 울려



폐지였다.

오일정 로농적위대 사령관이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열병부대들이 열병식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로농적위대 사령관은 열병종대들을 사열하면서 공화국창건 63돐을 축하하

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열병식을 시작하겠다는것을 보고하였다.

김영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

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3돐을 맞으며 진행되는 로농적위대의 열병식은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불을 높이 들고 우리의 공화국정권과 민족의 존엄을 총대로 굳건히 지키며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이 땅우에 기어이 통일되고 통성변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일찌기 항일의 불길속에서 혁명적민간무력 건설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고 전민항전으로 미일 두 제국주의 강적을 타승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후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농적위대를 창건하시고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갖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여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튼튼히 확립해주시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적군사사상과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인민방위무력건설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온 사회에 총대중시, 군사증시기풍이 차넘치게 하시고 로농적위대를 하나의 강력한 전투대으로, 인민군대의 믿음직한 익숙부대로 억세게 키우심으로써 우리 조국이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가 빛나게 실현된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도록 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필승의 신심과 봉기장을 안고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력과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최대로 폭발시켜 2012년을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승리의 포성을 계속 높이 울립으로써 당시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조선은 한다면 한다는것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적들의 무모한 새 전쟁도발책동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들이 감히 신성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전드린다면 전체 인민이 총을 잡고 온 나라가 요새화된 선군조선의 위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우리의 생명이고 행복의 요람인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수호할것이며 침략의 본거지까지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 조국통일의 혁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해야말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2면으로 계속)



남조선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 대결로 그칠 새 없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일 남조선 후전 광들은 미국과 야합하여 포항과 파주 등 여러 사격장들에서 『군수지원협력』 향상을 위한 해병대 헌원회를 열렸다.

그런가 하면 남조선군부 세력은 공화국을 정밀타격하기 위해 최신형 미사일 『스파이크 NLOS』와 신형 반땅크미사일을 서해 5개 섬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속에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는 얼마전 정세가 긴장한 사해 지역을 찾아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면서 대비 대세를 절차히 강화할 데 대한 대결 악당을 거리낌 없이 뇌까렸다. 대화분위기로 나아가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또다시 전쟁 대결 상황에 몰아가기 위한 위험한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유관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속에 6자회담을 하루숙히 재개 할 때 대한 내외여론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대화만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상쇄를 해소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대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자면 대화에 알맞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상대방을 위협하고 총포탄이 울부짖는 마당에서는 대화가 진행될 수 없고 진행된다 해도 결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다.

이것은 지나온 역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더우기 지난 7월 말에 진행된 조미사의 고위급 회담에서 쟁방은 전쟁과 대결의 방법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조미고위급 회담은 유관국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만약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바란다면 대화에 저촉되는 일체 군사적 행동들을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을 노린 군사적 대결 소동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6자회담을 가로막는 고의적인 행위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앞에서는 대화를 운운하고 뒤에서는 충분히 들려내는 그들의 2중적 태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문제는 내외호전 세력들이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 망동이 제 2의 조선전쟁을 도발할 아망에 벌어지는 위험천만한 행위하는데 있다.

이번에 벌린 『군수지원협력』 향상을 위한 해병대 헌원회가 그 대표적 실례이다.

해병대의 기본 사명은 상륙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륙 작전은 철두철미 상대방에 대한 선제 공격이다. 미군의 군사 교육에서도 그것이 『바다에서 둑지로 진행하는 공격 작전』이며 그 목적은 상대측 지역의 일부를 점령함으로써 차후 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육군, 공군이 전방 기지로 리용할 수 있는 비행장, 항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상륙 지원 단이 동원된 이번 훈련 기간에 지뢰와 철조망 등 장애물을 극복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훈련이 진행되었다.

현실은 내외호전 세력들이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되어 있음을

공화국이 한두 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내외호전 세력들은 공화국의 대화의지를 나약성으로 오婉하지 말고 자멸을 초래할 전쟁 대결 소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김철호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7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둘러싼 당국의 기만행위를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작성된 기본 협약서가 제목이 서로 다른 두 개로 되었다는 것을 밝혀진 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 하나가 주민들에게 공개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제목이 민간, 군부가 같이 사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际 제주도 측과 국방부가 서명한 기본 협약 약속에는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로 표기되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 제주도 주민들에게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였다.

위선적인 문건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국방부와 제주도 측은 그 어떤 변명으로

본사기자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际 제주도 측과 국방부가 서명한 기본 협약 약속에는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로 표기되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 제주도 주민들에게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였다.

위선적인 문건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국방부와 제주도 측은 그 어떤 변명으로

본사기자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际 제주도 측과 국방부가 서명한 기본 협약 약속에는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로 표기되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 제주도 주민들에게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였다.

위선적인 문건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국방부와 제주도 측은 그 어떤 변명으로

본사기자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际 제주도 측과 국방부가 서명한 기본 협약 약속에는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로 표기되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 제주도 주민들에게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였다.

위선적인 문건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국방부와 제주도 측은 그 어떤 변명으로

본사기자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际 제주도 측과 국방부가 서명한 기본 협약 약속에는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로 표기되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 제주도 주민들에게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였다.

위선적인 문건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국방부와 제주도 측은 그 어떤 변명으로

본사기자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际 제주도 측과 국방부가 서명한 기본 협약 약속에는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로 표기되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 제주도 주민들에게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였다.

위선적인 문건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국방부와 제주도 측은 그 어떤 변명으로

본사기자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际 제주도 측과 국방부가 서명한 기본 협약 약속에는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로 표기되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 제주도 주민들에게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였다.

위선적인 문건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국방부와 제주도 측은 그 어떤 변명으로

본사기자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际 제주도 측과 국방부가 서명한 기본 협약 약속에는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로 표기되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 제주도 주민들에게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였다.

위선적인 문건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국방부와 제주도 측은 그 어떤 변명으로

본사기자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际 제주도 측과 국방부가 서명한 기본 협약 약속에는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로 표기되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 제주도 주민들에게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였다.

위선적인 문건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국방부와 제주도 측은 그 어떤 변명으로

본사기자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际 제주도 측과 국방부가 서명한 기본 협약 약속에는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로 표기되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 제주도 주민들에게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였다.

위선적인 문건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국방부와 제주도 측은 그 어떤 변명으로

본사기자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际 제주도 측과 국방부가 서명한 기본 협약 약속에는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로 표기되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 제주도 주민들에게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였다.

위선적인 문건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국방부와 제주도 측은 그 어떤 변명으로

본사기자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际 제주도 측과 국방부가 서명한 기본 협약 약속에는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로 표기되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 제주도 주민들에게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였다.

위선적인 문건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국방부와 제주도 측은 그 어떤 변명으로

본사기자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际 제주도 측과 국방부가 서명한 기본 협약 약속에는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로 표기되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 제주도 주민들에게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였다.

위선적인 문건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국방부와 제주도 측은 그 어떤 변명으로

본사기자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际 제주도 측과 국방부가 서명한 기본 협약 약속에는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로 표기되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 제주도 주민들에게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였다.

위선적인 문건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국방부와 제주도 측은 그 어떤 변명으로

본사기자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际 제주도 측과 국방부가 서명한 기본 협약 약속에는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로 표기되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 제주도 주민들에게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였다.

위선적인 문건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국방부와 제주도 측은 그 어떤 변명으로

본사기자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际 제주도 측과 국방부가 서명한 기본 협약 약속에는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로 표기되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 제주도 주민들에게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였다.

위선적인 문건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국방부와 제주도 측은 그 어떤 변명으로

본사기자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际 제주도 측과 국방부가 서명한 기본 협약 약속에는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로 표기되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 제주도 주민들에게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였다.

위선적인 문건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국방부와 제주도 측은 그 어떤 변명으로

본사기자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际 제주도 측과 국방부가 서명한 기본 협약 약속에는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로 표기되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 제주도 주민들에게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하였다.

위선적인 문건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국방부와 제주도 측은 그 어떤 변명으로

본사기자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际 제주도 측과 국방부가 서명한 기본 협약 약속에는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로 표기되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